

Diabetes Story IV

당뇨병과 관련된 감염증(2) 이비인후과적 감염

당뇨병환자들은 감염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 또한 당뇨병환자에게서 감염이 있으면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워져 매우 위험하다. 피부감염증이나 족부감염증의 경우에는 그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아서 그 원인이나 증상, 예방법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귀나 코, 그밖에 호흡기 등의 감염은 아직 그 정보가 부족하다. 국내 당뇨병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당뇨병 관련 증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 을지대학병원 감염내과 윤희정 교수와, 순천향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이병돈 교수의 도움말을 들어보았다.

Q. 당뇨병으로 인해서 귀나 코도 감염이 될 수 있나요?

A 고령의 당뇨병환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악성 외이도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환자의 외이도염이 옆 머리 뼈를 침범하고 심하면 머리뼈의 밑바닥까지 침범해 골수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외이도염은 대부분 감염을 통해 일어나고 귀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더욱 진행될수록 안면신경마비 뿐만 아니라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환자의 콧구멍에 감염이 생기면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 눈이나 얼굴에 통증이 나타나며, 뒤이어 노란색을 띠는 흰색 콧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Q. 외이도염이란 무엇인가요?

A 외이도는 귀의 입구에서 고막에 이르는 길인데, 귀를 구성하는 부분 중 귀바퀴(이개)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S자 모양의 관을 의미하며, 길이는 약 2.5~3cm 정도입니다. 외이도는 피부, 피지선, 땀샘, 이구선(귀지샘), 모낭, 연골 및 골(뼈)로 구성되며 이 부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긴 것을 외이도염이라 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외이도는 세균이 거의 없는 깨끗한 곳으로 구조상 외부의 침입에 잘 견디고, 외이도의 자정작용에 의해 유지됩니다. 약산성 pH6.0가 유지되어 병원성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피부층이 단단하며, 지속적인 탈피와 이구(귀지)의 움직임으로써 자연세척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이도의 자연적인 방어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외이도염에 쉽게 걸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습진이나 피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귀를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도 잘 발생되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주 재발하게 됩니다.

습진이나 피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귀를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도 잘 발생되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주 재발하게 됩니다.

Q. 외이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A 병의 경과를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염증 전구기

습기나 외상에 의해서 외이도 피부 위를 덮고 있는 얇은 지방층이 제거되고, 따라서 물이 피부로 직접 흡수되어 피부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 후 2차적으로 모공, 피지선 등의 배출구가 막히게 되는데 이 충만감(귀에 뭔가가 꽂 차있는 듯한 또는 막힌 듯한 느낌), 소양증(가려움증) 등이 이 단계에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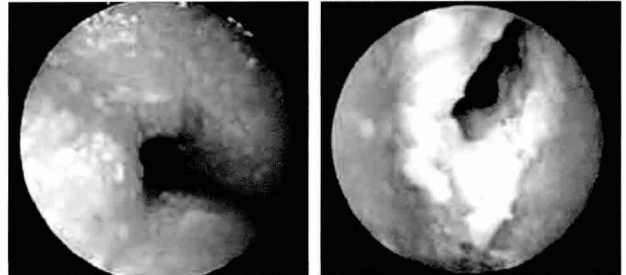


▶ 급성 외이도염(경증, 중등도, 중증)

경한 상태에서는 피부의 발적(빨갛게 되는 것)과 심하지 않은 부종이 나타나고, 이주(귓바퀴 앞부분의 연골 구조)를 잡아당기면 가벼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루(농과 같은 분비물)는 누렇지 않고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등도의 상태가 되면 통증과 소양감이 심해지고 외이도도 더욱 좁아지게 되며, 농성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증의 상태에서는 외이도가 완전히 막히고 녹색의 분비물이 각질과 섞여서 나오며,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이주를 당기면 더욱 통증이 악화되고 음식을 씹을 때에도 통증이 있게 됩니다.

▶ 만성 외이도염

이때의 외이도는 특징적으로 외이도의 피부가 위축되어 있고, 귀지가 없이 반질반질한 모양을 보이며 외이도에 상처 자국들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이도가 근질근질하고 약간의 통증이 있을 뿐이지만 후에는 극심한 통증이 있어 수면장애가 될 뿐 아니라 보행이나 식사에도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소양감(가려움증)은 외이도염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흔히 급성 외이도염에서는 염증이 심하기 전에 소양감이 이충만감과 함께 출현하지만, 만성 외이도염에서는 소양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려워서 긁다보면 일단 소양증은 감소되지만 상처가 나고 염증이 심해져 증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귀가 간지러워서 귀를 만지거나 면봉 등으로 쑤시는 경우는 증세를 더욱 심하게 하여 계속 귀를 만지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만성외이도염 : 외이도 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귓구멍 깊은 곳에 끈적한 분비물이 고이고 염증은 더욱 악화되어 점차 귓구멍이 좁아져 치료가 더욱 어렵게 된다.

Q. 당뇨병환자가 청력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뇨로 인한 것인가요?

A 당뇨병환자가 귀가 잘 들리지 않을(난청) 경우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감각신경성 난청

이는 작은 혈관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 당뇨병성 신경합병증과 내이의 당 수치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의한 청력장애의 대부분은 고음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에 따른 청력 손실을 제외하면 당뇨병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아직까지는 많은 환자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돌발성 난청

당뇨병환자가 아침에 깨어나 한쪽 귀의 청력저하를 호소하는 경우 이명(소리울림), 이충만감, 현기증 등이 같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약물투여와 함께 매일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그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당뇨병과 관련된 코 감염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환자에게 비노모균증이 잘 발생합니다. 비노모균증의 원인균은 접합균으로, 건강한 숙주에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당뇨병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입된 접합균 포자가 코 또는 부비동(코 안쪽의 바깥 콧구멍에서 뒤쪽 콧구멍에 이르는 콧속 및 콧속 둘레의 작은 구멍)에서 집락을 형성하고, 안와(눈구멍)와 사상판으로 빠르게 침습하여 두개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임상증상은 안와 및 코 주위에 급성 종창 및 동통(쑤시고 아픔)이 가장 흔하며, 혈성비루, 안검의 색 변화, 시력저하, 안구운동실조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반측부전마비, 경련, 혼수 수막뇌염의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7~10일 내에 사망하게 되므로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교정과 엄격한 혈당조절이 요구됩니다.

Q. 감염이 생기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당뇨병환자로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코의 감염이나 귀의 감염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자주 검사하고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에 의해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합니다. 본인이 손수 깨끗이 한다고 만지는 경우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는 세심하게 시행하여 상처가 나거나 출혈이 생

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외이도의 경우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척 후에는 꼭 건조시켜야 합니다. 또한 악성 외이도염은 고령의 당뇨병환자나 면역억제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통증이 있을 경우 진통제와 수면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이도염에 걸리면 초기에는 귀가 가렵고 아프며 진물이 납니다. 그런 경우 찬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진물은 귀 밖으로 흘러나온 것만 살짝 닦아냅니다. 그런 뒤 전문의의 처치를 받아야하겠습니다.

Q. 혈당조절과 관련한 이비인후과적 감염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악성 외이도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까요?

A 10%의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은 염증을 앓는다고 할 정도로 이비인후과적 질환은 당뇨병환자 뿐 아니라 일반 환자에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귀의 경우 귀이개 등으로 귀속을 함부로 후비지 않도록 하며, 한번 귀에 질병을 경험한 사람은 수영이나 목욕을 하는 경우 귀마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의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주변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습기가 많은 환경, 땀을 흘리는 경우, 고온, 피부의 손상, 외상, 세균오염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거나 그대로 두어서 체온에 의해 자연히 마를 수 있도록 합니다. >